

가해·제2384호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6년 6월 7일

춘천주보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순례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아기 예수>
1678년경, 캔버스에 유채
부다페스트 미술관, 헝가리

목 차

02 말씀의 향기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

03 사제 단상
성물-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04 특집
우리 신앙의 뿌리-공소(公所)²

05 열린 마당
미사에 늦었는데 영성체할 수
있나요?

06-07
교구 및 교회 소식 · 알림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제1독서 신명 8,2-3,14ㄴ-16ㄱ

화답송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빛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제2독서 1코린 10,16-17



‘부속가’는 6쪽에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요한 6,51-58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성산 갈바리아의 성 십자가 본당

교회 생활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

매년 이맘때가 되면 처음 성체를 모시던 날을 떠올립니다. 열심히 첫영성체를 준비하던 저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시던 수녀님께서, 처음 성체를 모시고 바치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꼭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의 저는 신부님이 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삽니다.

귀국 후 이곳 성산 성당에 와서 지낸 지 어느덧 4년이 되어 갑니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어려움이 많았던 본당에 경험 없는 본당 신부가 부임하여 여러 사건·사고들도 겪어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소가 많은 본당이라 매주 12~13대 정도의 미사를 봉헌하고, 몇몇 교구 일들을 병행하며 본당 설립 50주년과 성전 신축 준비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요즘입니다. 스트레스받을 만한 일도 적지 않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낼 때도 많지만 다행히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건 미사가 많은 덕분에 자연스럽게 자주 모시게 되는 성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성찬례를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 (교회 헌장, 11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잘 걸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의 원천이며 정점은 성체성사입니다. 본당의 열심히 신자들과 비교하면 기도를 딱히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성경을 더 열심히 읽는 것도, 요즘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성체는 더 자주 모시며 삽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트리엔트공의회,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에 관한 법규들 제1조, DS 1651)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일치되는 그 시간 덕분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그래도 사제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체성사의 무한한 풍요로움은 이 성사를 부르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에게 나타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8항)고 하였습니다. 성체성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행위이며(Eucharistia, 성찬례, 감사제), 천상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될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나타내는 빵 나눔이며,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친교의 시간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328~1332항 참조). 육적으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라 너무 잘 먹어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일이 오히려 많지만, 영적으로는 아사 직전 상태로 연명만 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굶주린 우리 영혼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더 자주 모십시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여정입니다.

성물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어느 날 찾아 들어간 유튜브 사이트 첫 페이지에 이런 제목의 영상이 보였습니다. ‘성물-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1부-언약’ 길이가 좀 되는 영상이었지만, 인상 깊게 다가오는 마중 그림에 마음이 끌려 영상을 시청했지요.

영상의 주인공은 가난한 나라의 대명사로 곧잘 손꼽히는 나라 에티오피아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첫 장면은, 정교회의 신자이면서 사제를 꿈꾸는 13살 소년 크브롬이 아찔한 암벽을 맨손으로 등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소년과 그 가족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곁에서 바라볼 수 있었지요. 척박한 땅과 잦은 내전의 폭력의 굴레 속에서 좀처럼 벗어날 길 없는 가난의 무게에 허덕이는 그들이었지만, 그 가족들은 한결같이 행복하다고 고백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기도의 중심에서, 저무는 해를 배웅하며 바치는 어린 소년의 기도가 잔잔하게 마음속에 젖어 들어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 불평할 것도 없어요. 오직 감사드릴 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임에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니 감사드릴 뿐이라는 기도가 제 가슴에 박혀 왔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언제부터인가 속이 울렁대더니, 결국 그 기도엔 눈물을 흘렸습니다.

4부까지 제작된 ‘성물’이라는 영상물은 한국방송(KBS)에서 공사 창립 기획으로 얼마 전에 방영한 것이었습니다. 2부의 부제는 ‘초대’ 이고, 우리 가톨릭교회의 믿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것으로 알려진 성의(聖衣)를 소개하며 시작하지요. 혹시라도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의 감동을 위해,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느꼈던 감동과 의미에 함께 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소박하고 진심 가득한 믿음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큰 기쁨 역시 같이 누릴 수 있겠지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여러분을 위로의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아래의 QR코드는 1부에서 4부까지의 전편 모음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z9qhZNb644>



샤워할 때 물 아끼고 샤워시간 줄이기

公所

우리 신앙의 뿌리-공소(公所) ²

곰실(고은리) 공소

2026년 발간된 <우리의 뿌리>를 다시 읽으며, 우리 신앙의 원천을 되새깁니다.



춘성군 동면 장학리 노루목에 살던 신앙에 적극적이었던 한 청년, 엄주언 말이다. 세운 곰

실 공소는 춘천 최초의 공소로서 춘천교구의 모체가 되었다. 엄주언이 중심이 되어 자기 집 옆에 강당을 세우고 공소 예절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족들끼리 모였던 신앙집회가 점차 확대되어 교우수가 40-50명으로 증가하자 풍수원 본당의 정규 하 아우구스티노 신부에게 사목방문을 부탁하게 되었고, 곰실의 교우 수가 더욱 증가되자 필연적으로 공소의 설립과 신부의 상주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렇듯 교세가 확장되자 엄주언은 신부를 청하기 위해 풍수원 본당과 서울 명동 본당을 드나들며 신부 청함을 복망(伏望)했고 이러기를 3년 계속한 후에 신부를 모셔가라는 편지가 마침내 곰실(지금의 춘성군 동내면 고은리)에 도착하게 되었고, 김유용 필립보 신부가 부임하게 된다.

1920년 9월 22일 김유용 필립보 신부가 곰실에 부임하면서, 곰실은 본당으로 승격하게 된다. 신부가 상주한 후 곰실은 전교에 박차를 가하고, 신앙의 뿌리도 더욱 탄탄해진다. 이에 엄주언과 김 신부는 춘천읍으로 본당 이전을 계획하였고, 드디어 1928년 곰실에서 춘천읍 약사리로 본당이 이전되었는데 당시 교우 수는 600여 명을 헤아렸다.

공소 건물은 한국 전쟁 때 인민군 대대가 주둔하자 유엔군이 폭격을 가하여 완전히 타 버렸고, 현재의 곰실 공소는 그 후 구인란(T. Quinlan) 주교가 신축한 것이다.

엄주언을 중심으로 곰실 공소에서 태동한 춘천의 천주교회가 국지적이고 한정적인 사목활동에서 춘천의 전 지역을 공동체로 하는 본격적인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현재의 곰실 공소는 효자동 관할 공소로서 이응현 테오도로 은퇴 신부에 의해 관리와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12.24).

(좋은이웃 2001년 5월호)

오늘날의 곰실 공소

관할 거두리 본당 033-264-9101 (기존 효자동 본당에서 변경)

주소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220

신자수 (2025 기준) 43 45 **총 88**

미사안내 매월 셋째 주, 주일 16시

2021년 이응현 테오도로 신부의 선종으로 현재 공소에 상주하는 사제는 없다. 춘천교구의 사적지로 지정되어 순례객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미사에 늦었는데 영성체할 수 있나요?

지난 주일에 그만 미사에 늦게 간 거예요. 영성체할 때 ‘과연 모셔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체를 받아 모시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미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례하여 영성체하는 것이 온전히 참례하는 방식이지요. 그러나 미사에 처음부터 참례하지 않았다 해도 영성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기 마련이죠. 영성체는 미사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한 형태지요(「전례현장」 55항 참조). 그래서 미사에 ‘조금’ 늦더라도 영성체는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때부터는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미사는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뤄지지요. 전례현장에 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예배 행위를 이룬다’ (56항)고 나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어도 말씀 전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오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말씀 전례 중간에 온 경우에도 영성체를 꼭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양심의 문제니까요.

영성체할 때 줄지어 서면서 성체 성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본당은 영성체송을 먼저 하고 성체 성가를 부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있나요?

영성체송과 성체 성가는 영성체하는 이들의 영적 일치를 드러내고 마음의 기쁨을 표시하면서 영성체 행렬의 공동체성을 밝혀주기 위해 신자들이 한목소리로 부르지요. 기본적으로 사제가 성체를 모실 때 시작합니다(「미사경본 총지침」 86항 참조). 영성체송은 성체 성가를 부르지 않을 경우에 바치고, 성체 성가를 부르면 영성체송은 할 필요가 없지요.

보통 우리는 신부님께서 성체를 손바닥에 주시면 저희가 손으로 집어 모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입으로 받아 모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에는 모든 신자가 입으로 성체를 모셨는데 공의회 이후에 초기 그리스도교 방식대로 손으로 받아 모시는 것이 함께 허용됐지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입으로만 혹은 손으로만 영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교회 가르침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미사경본 총지침」 161항).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건축위원회

6. 11(목)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예수 성심 대축일·사제 성화의 날

6. 12(금), 춘천교구 주보 대축일

견진 성사

주교좌 죽림동 본당: 6. 13(토) 18시

연봉 본당 사목방문

6. 19(금)~21(주일)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6. 13(토) 안토니오

박관옥 신부

속초 동명동 성당 앞

초고층 아파트 건축 반대 서명



QR 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1952년 한국전쟁 중 세워진 석조 성당이
바로 앞 초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70년 역사를 지킵니다.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제14차 한국가톨릭 농아인의날 행사

6. 7(주일) 거제도

레지아 월례회의

6. 7(주일) 14시, 말당회관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6. 9(화) 10시, 교육원

대상: 한번이라도 렉시오디비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5시

접수 시작: 10시 /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성령새신봉사회 기도회

6. 9(화) 19~22시, 소양로 성당(미사: 19시)

기도회 진행: 성령강림사도수녀회

☎ 010-6703-3133 문의

감사와 찬양의 밤(중부지구 성령봉사회)

6. 12(금) 18시, 홍천 성당

강사: 김대영 베드로 신부(전주교구)

☎ 010-6682-3537 문의

찬미받으소서 1차 생태피정

6. 13(토) 09:30, 양양 오상영성원

여성연합회 월례회의 및 임원연수회

6. 13(토) 10시, 교육원

춘천 평협 월례회의

6. 13(토) 10시, 말당회관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 13(토) 10시, 스무숲 성당

후원회 현황 QR코드 스캔▶



후원회원들과 입대를 앞둔 신자와 그 가족들
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033-263-9750

사랑의 기쁨 3기 청년 모임

6. 13(토) 10:30, 교구청 대회의실

6월 카나 혼인 강좌

6. 13(토) 18:30, 일동 성당, 입암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가톨릭 성서 6차 창세기 연수

6. 13(토)~14(주일) 가톨릭회관

레지아 Se. 평의원 연수

6. 13(토)~14(주일) 파주민족화해센터

평화야 놀자! 갯세마니에서~

6. 20(토)~21(주일) 갯세마니 피정의 집

대상: 초 3~6학년, 인솔교사 1~2명

접수: 6. 13(토)까지(선착순 30명) / 1인 7만원

☎ 033-461-4243

부 속 가

성체 송가: 21절부터 시작하여 짧게 할 수도 있다.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2.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4.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5.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6.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7. 새임금님 베푼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뉘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18.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온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19. 나뉘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음을 의심마라.
20.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빵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춘천 장례식장

교구와 장례 복지 협약 체결
관+수의 무료제공
사망진단서 자체 발급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가람 익스프레스

일반, 포장, 보관이사, 전문업체
항상 미소짓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합니다.
☎ 244-2439, 010-9125-2828
강길훈 · 김경옥 비르짚다

속초 장사향 장사회집

활어회
대게, 홍게
☎ 010-8259-3979
현윤 프란치스코 · 장근해 에멜리아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갯세마니 피정의집 관리 직원 채용 공고

모집인원: 남자 1명
 업무내용: 피정의 집 내·외부시설관리
 제출서류: 이력서, 본당신부 추천서와 교적사본, 건강진단서
 마감: 6. 24(수)까지 / 전형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면접일시 후후 개별통보)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메일 postscrip95@gmail.com
 제출처: 인제군 방어마을길 196 갯세마니 피정의집
 문의: ☎ 033-461-4243

본 당 알 림

전례 오르간 반주자 교육 세미나

6. 13(토) 11~16시, 노암동 성당
 주제: 성음악/청년과 초보자의 반주법
 강사: 김수창 루도비코 신부/임경희 글라라
 신청: 6. 9(화)까지 (식사비: 만원)
 ☎ 010-6218-2273

일 반 알 림

6월 토요일 낮 치유 피정 및 철야 기도회

6월 토요일 낮 치유 대피정: 6. 13(토) 12:00~17:30 / 강사: 이기양 요셉 신부(서울대교구)
 12주 작정 철야 기도회: 6. 2(화)~8. 18(화) 12:00~17:30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미사/안수/중식무료)
 ☎ 010-3310-8826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 7월 개강

-애덕의 교회사, 이진현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헬레니즘 시대, 주원준 박사
 -에밀리디킨슨 (침묵하는)신에 대한 언어의 실험, 김민철 신부
 -루카와 사도행전, 나자렛에서 로마까지, 김건동 신부
 -자크 마리탱의 그리스도교 인간학, 김민 신부
 -예수의 윤리: 사랑하며 사는 삶의 경로, 박상훈 신부
 -현존 영성수련(7주 or 8주), 김영근 신부
 *각 6주,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02-3276-7733 신청 center.jesuit.kr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쉼과 함께 제주여름 우도섬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일사: 7. 18~20/7. 24~27/7. 29~31/8. 1~4
 8. 8~10/8. 14~16/8. 20~23/8. 28~30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일 반 알 림

제주산들평화순례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수곡길: 6. 19~21 / 한라산숲길: 7. 17~19
 우도: 7. 24~26 / 올레바닷길 : 9. 17~19
 마라도 순례: 7. 3~5/7. 10~12/8. 21~23
 추라도 성지순례: 9. 4~7 / 9. 11~14
 10. 31~11. 3 / 11. 14~17 / 11. 26~29
 ☎ 064-732-4702 면형의 집

“잠시멈춤” 청년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6. 15(월) 19:30, 착한목자수녀회/관구강당(스무췌2길 16-3)/대상: 남, 여 청년(미혼)
 ☎ 카카오톡채널 ‘착한목자수녀회’

제주 3박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 (30만원)
 베트남, 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20만원)
 일본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20만원)
 ☎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신약완독: 6. 18(목)~21(주일)
 성경완독: 7. 24(금)~8. 1(토)/8. 14(금)~22(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예수회후원회 해외성지순례

7. 16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 제한절 연휴
 8. 12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과 안중근의사 발자취 (하열진, 장춘, 단동, 차쿠, 대련-5일 180만원)
 9. 24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 추석 연휴
 10. 12 발칸 3국 및 메주고리에(10일 498만원)
 10. 26 알프스 주변 수도원순례 및 성모성지(12일 64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 금융 사기 예방 ◆

- ✓보이스피싱: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 ✓스미싱: ‘링크 한 번 눌렀을 뿐인데...’
- ✓규싱: ‘어떻게 진짜 QR코드일까?’
- ✓로맨스캠: ‘사랑하면 돈을 보내 달라고?’
- ✓투자사기: ‘진짜 좋은 투자기회라더니...’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안전수칙!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 가톨릭춘천시협 본점(죽림동) 033-255-6742
 지점(거두리) 033-262-6742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성소모임 / 성소모임은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서울 자양동 수녀원(건대입구역)	010-9695-1366	한 사람은 온세상보다 더 소중합니다.
---------	----	-------------------	---------------	----------------------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김길영 마르티노

통큰장어

장어구이(민물장어, 바다장어, 곰장어)
 정성껏 고아낸 몸보신 장어탕
 퇴계로 69번길 12번지(보훈회관 앞)
 ☎ 253-7108, 010-6373-3914
 홍장성 대건안드레아·최인숙 세실리아

지 오 건 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010-4075-2166 이보람 가브리엘

건축물 해체 전문 건축사 행정사

춘천교구 지역 건축물 해체 인허가
 및 철거공사(수익금 일부를 해당
 지역 본당 본인 이름으로 후원)
 ☎ 010-4735-6500
 김한근 안토니오

법무법인 중심 강릉사무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7인 선정
 류재율 변호사(토마스아퀴나스)
 서영우 변호사(이보헬로리)
 ☎ 033-920-8416
 류재율 토마스아퀴나스 대표 변호사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평화상조 강원본부장·회원가입
 연구·무연고·묘지이장·관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서림원-스테이, 카페(평창)

서림원(숙박시설), 카페(커피 등 음료)
 예가체프 콜드브루 맛집
 ☎ 0507-1424-5648
 박규홍 라파엘·이무헌 미카엘